하나님의 맛에 눈뜨는 은사

(고전12:4~11)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맛에 눈뜨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은사에 관한 말씀 두 번째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맛에 눈뜨는 은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 시간 끝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서론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한 번 다시 살펴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것은 삶에 대한 해석의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언제나 최고의 가치로 확신되어지는 것, 그 최고의 가치와 연관 지어서 의미를 찾아내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가난한 상황이 주어졌다, 사업이 실패한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돈일 때, 가난한 이 상황은 실패하는 상황이고 낙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써,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최고의 가치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와 연관 지어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진짜로 내 마음의 배를 만족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돈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나의 마음의 배부름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참 기쁨의 연속적인 근거가 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눈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에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맛에 눈뜬 상태에서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은, 해석하기 전에는 성공도 실패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아직 성공이 아닙니다, 해석이 돼야 됩니다.
돈이 하나도 안 벌려도 아직 실패가 아니에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해석돼봐야 아는 건데, 이 해석이 가능한 자가 마음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맛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실패해 가지고 졸지에 망하게 생긴 이 상황에서, 막 급격하게 파도처럼 현실의 상황이 나를 몰고 가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시는 전혀 땅의 일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맛에 눈을 딱 떠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하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쓱~ 웃을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은사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맛에 눈을 뜨려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을 삶의 해석으로 연결을 시키는 근거가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무엇에 관한 지혜를, 무엇에 필요해서 지혜를 구합니까?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문제를 안고 옵니다.
그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은 삶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생활에서부터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면 그 삶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판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용도가 삶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삶을 해석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지혜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삶에 대한 해석의 은사라고 연결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2살 젊은 나이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캐나다 밴쿠버라고 하는 휴양도시의 자연환경과,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예쁘고 똑똑한 두 딸과 귀여운 막내아들과, 커다란 재산과 기가 막힌 외제차 두 대와 모든 것을 다 놔둔 채,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 42살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뇌종양을 앓았던 거예요.
그리고 앓으면서 병과 싸우는 일 년 동안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머릿속의 의학적인 암은 내 마음속의 암을 고치기 위한 약이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보면,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지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든 세상적인 조건에 취해 살던 마음이 암에 걸렸던 상태이고, 머리에 암이 의학적으로 걸리므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맛에 눈뜨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지금이라도 가는 것이 최고라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목사에게, 자기는 이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걸 다 놔두고 가면서, '목사님 제가 부러우시지요?'를 만날 때마다 얘기하던 그 42살의 젊은 아빠, 젊은 남편, 그가 바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핵심적인, 은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의 돈 맛에 내 마음이 눈뜨고,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 눈뜨게 되고, 그리고 권력에 눈뜨게 되고, 수 없이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이 그 맛에 눈을 떠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예를 들어 돈 맛을 느꼈는데 돈이 없어질 때 그 과격한 파도 같은 힘에 의해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맛을 느끼고, '돈이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 맛을 느끼기에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이론으론 다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최고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 존재의 맛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마치 짜장면 먹고 잔치국수 먹으면 잔치국수 맛을 모르는 것처럼, 돈 맛에 찌들어 있고, 권력 맛에 찌들어 있고,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 맛에 찌들어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맛을 무슨 수로 깨닫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마음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맛에 눈뜨게 될 때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면 삶이 해석이 됩니다,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 지금 상황의 진정한 의미가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요.
지혜의 은사는 내 삶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은사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존재의 맛에 눈뜬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해 줘서 말해주는 거,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해석의 은사인데, 이번에는 삶에 대한 해석의 은사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에게 선물 중의 선물로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말씀이 있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 되어 오신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때의 말씀과 행위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육신이 되신 말씀조차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마는, 말씀을 구분하자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구분된 말씀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를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은사라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 해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생각과 행동을 위한 유일한 지침이고 표준입니다.
성경만이 절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수억, 수십억의 책이 있어도, 성경 안에만 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해석되지 않거나 바르게 해석되지 않을 때, 성경은 성경이기를 그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가치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으면서, 세상 가치에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우상화하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문자가 문자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칼 마르크스가 나오는 겁니다, 제2의 칼 마르크스가.
마르크스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를 삼게 됩니다.
앙드레지드 같은 사람은, '좁은 문'이라는 소설을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요즘도 허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들의 70% 정도는, 성경으로부터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성경은 격언도 될 수 있고 성경의 구절들이 평생에 마음에 두고 살 수 있는 어떤 좌우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는, 성경이 성경답게 존재하고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자 이면에 숨어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이 해석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와 만나지는 사건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성경의 기능의 핵심입니다.
해석과정을 통해서, 문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자 이면에 기다리고 계시고 숨어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나와 만나지는 거예요, 해석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최고의 가치로, 머리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존재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맛을 느끼고 있는 최고의 존재, 최고의 가치에 따라서 성경은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맛에 눈뜬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그 맛에 눈뜬 사람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해석이 나옵니다.
그 해석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만남의 구체적인 사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내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존재에 대해 맛을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맛을 느껴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돈 맛을 느끼면서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권력 맛을 느끼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성공과 형통, 자식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인용할 수 있고, 성경을 도용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좌우명으로 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십자가 얘기는 뭡니까?
자! 모든 성경 말씀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갖는 일을 향하여 방향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행위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갖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들이 방향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목표점을 향해 다~ 있는 거예요.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 첫 절부터 마지막 절,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갖는 일을 향하여 방향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갖게 되는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노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근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갖도록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 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
아시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경우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러

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래서 모든 다른 지식을 다 배설물로 보내는데, 그 모든 지식이 다 지금 서점에 가면 다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이에요, 유용한 지식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 개의 지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일은 뭐냐?
이 수백억 수천억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백 수천억의 지식 중에서 딱 한 가지의 지식이 유일하게 참된 지식이라는 걸 골라내고, 유용해 보이는 그 모든 수십, 수백억의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신탁에 의해서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
말 다방면의 많은 식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게, 그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에 편만하게 꽉 차 있던 그 모든 세상에 관한 지식, 만물에 관한 지식, 이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알고 있다 그랬더니, 최고의 지혜자라 그러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있으면, 돈이라는 존재가 내게 들어오면 만족한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게 있어야만 만족하고 기쁠 것이라는 걸 이론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눈뜨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맛에 눈뜨게 되면,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갖는 일을 향해 놓여 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갖게 하는 실질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 모든 구절, 모든 단어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린 것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알지 아니하기로'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지식에 대한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에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영적인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도,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용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능력, 얼마나 귀중한 지식들입니까? 그런데 다~ 배설물로 여겨요.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해석인 것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이 만나게 되고 갖게 된다고 하는 마지막 최고의 가치점을 향하여 향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십자가가 공통적인 거예요.
십자가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말씀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가 모든 말씀 속에서 안 보이지요?
그러면,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존재의 맛에 눈 뜨지 못한 것이고, 둘째 은사가 없으면서 성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분별해 주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맛을 알고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십자가가 보이는 과정이 가능해 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과정이 가능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도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서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게 은사입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은사라 아니라.
그 유명한 모든 지식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을 아는 지식 앞에서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에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는 교인들의 많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과 행위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태어나심부터 하늘에 오르심까지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그 말씀을, 또한 지식의 말씀을 받은 은사자들이 해석을 해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오늘 듣는 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지요.
하나님 존재의 맛에 눈뜬 자에게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사요, 하나님 맛에 눈뜰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은사를 사모하시면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맛을 안에 지니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의 맛을 느끼게 해주심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 중에 복 중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